

강장제 (強壯劑) 의 대명사 녹용

홍문화/서울대 명예교수

삼용(參茸)이라고 하면 인삼과 녹용의 뜻이지만 좀더 넓은 의미로는 강장제를 대표시킨 표현도 된다. 으레 건재약방 간판에는 인삼과 녹용이 그려 있게 마련인 것도 그 때문인 것이다.

근래 인삼의 성분이나 약리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심심치 않게 뉴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녹용에 대해서는 밑수, 탈세의 범죄 보도뿐이지 통 과학적인 언급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녹용의 약리작용이나 성분에 대해서 문의해 오는 사람이 많지만 아직도 시원한 답변을 할 만한 과학적 자료가 없는 것이 유감이다.

요새는 주로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종대왕의 <세종지리지(世宗地理志)>에 수록된 약재 생산지를 보면 녹용이 함경도·평안도를 비롯하여 충청도·경상도·전라도의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전라도는 산지가 더 많아 부안·나주·해진·영광·무장·함평·남평·무안·임실·광양·장흥·낙안·순천·고흥·동복·제주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문헌을 기초 삼아 녹용의 국산화 문제를 좀더 연구해 볼 만하지 않을까.

녹용은 녹각과 달라서 미처 각질화되지 않아 유연한 것이며 솜털이 돌은 가자(茄子) 또는 버섯 모양이기도 하여 대각(袋角)이라고도 한다.

또한 돌아나는 새순 같다고 하여 용(茸) 자에는 초두(草頭)가 붙어 있다.

대개 여름 하지 때에 묵은 녹각이 탈락되고 그 자리에 새로 돌아나오는 것을 적당한 시기에 잘라내어 그늘에서 말린 것이다.

녹용을 썬 것을 보면 첨단 부위는 마치 양초처럼 희고 연한데 이것을 엽편(臘片:最上帶)이라고 하여 제일 귀하게 치고, 그 다음 부분은 혈맥이 통해 있어 혈편(血片:上中帶)이고, 또 다음층은 벌집처럼 구멍이 뚫려 있고 빛도 검은 자주색인데 풍편(風片:中帶)이라 하며, 직접 잘라낸 밑부분은 골편(骨片)이라고 하여 제일 떨어지는 부분이다.

허약하고 마르고, 사지·허리 등이 쭈시는 것을 고치며, 남자의 정력이 약하고 다리·무릎에 힘이 없고 밤에는 몽정을 하며 여자는 하혈과 적백 대하증이 있는 것을 보하며 뱃속의 태아를 편안하게 한다.

<동의보감>의 녹용 약효 기재를 읽어보면, 경신(輕身)·연년(延年)·불로(不老)·명목(明目)·흑발(黑髮) 등을 내세우고 있는 일반적 보약에 비하여 다분히 감정과 성적허약 보강의 뜻이 강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인지 <신농본초경>에서도 녹용을 강장제의 대명사로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준 동의보감」에서 발췌 (도서출판 등지)